

국가예산 확보 총력전

정현율 익산시장, 기재부 예산심의 대응 현안 사업 설명·예산반영 건의

정현율 익산시장이 내년도 국가예산 최대 목표치 달성을 위해 기획재정부를 찾아 총력전을 펼치고 있다.

정 시장은 21일 기재부 예산총괄심의관, 경제·사회·복지안전 예산심의관 및 관련 예산과장 등을 비롯한 핵심 간부를 만나 지역 경제 상황과 사업 당위성을 설명하고 주요 현안사업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예산편성을 호소했다.

이번 방문은 부처예산안에 미반영 또는 과소반영 사업을 중심으로 활동해 부활의 돌파구를 마련하는 등 2차 심의에서 지역 현안사업의 당위성을 확실히 각인시켜 최대 국가예산을 기



이어 관련 예산과장과 만나 △KTX 익산역 광역복합환승센터 건립사업 △왕궁정착농원 협업축사 철거 및 생태복원사업 △호남권 치유농업확산센터 건립사업 △국립 희귀질환 센터 유치 등을 신규 사업으로 편성해 줄 것을 강력히 요청했다.

정 시장은 다음 주 중에도 기재부를 방문해 중점 대응 사업을 중심으로 시급성·타당성을 설명하며 마지막까지 총력을 다할 예정이다. 또한 세종사무소를 중심으로 전북도는 물론 김수홍·한병도 지역 국회의원 등 정치권과 긴밀한 공조 시스템을 구축해 전방위적으로 활동을 펼칠 방침이다.

/익산=이재춘기자

익산교도소세트장, 대한민국 안심관광지 선정

재난해 24편 최다 촬영 기록

누구나 안심하고 찾아갈 수 있는 대한민국 대표 교도소가 있어 화제를 모으고 있다. 바로 익산교도소세트장이 그 주인공.

익산시는 '익산교도소세트장'이 한국관광공사가 주관한 2022 대한민국 안심관광지에 선정됐다고 밝혔다. 이번에 선정된 안심관광지는 여행 정보 사이트인 '대한민국 구석구석'을 통해 소개된다.

국내 최초의 교도소세트장인 익산교도소세트장은 드라마와 영화 촬영지로 각광을 받고 있다.

지난 한 해는 안심 교도소세트장에 코로나19 상황 속에서도 24편의 촬영이 이뤄져 개관 이래 최다 촬영 기록을 세웠다. 현재 인기리에 방영 중인 '종이의 집', '왜 오수재인가', 최근 개봉한 '뜨거운 페'를 비롯해 지난해 화제작



누구나 안심하고 찾아갈 수 있는 대한민국 대표 교도소가 있어 화제를 모으고 있다. 바로 익산교도소세트장이 그 주인공

'펜트하우스' 시리즈 중 시즌3의 오피닝 씬 또한 이곳에서 촬영됐다. 특히 익산시가 교도소세트장을 코로나19 속 지역의 대표 관광명소로 육성

/익산=이재춘기자

익산시, 지난해 대비 악취민원 대폭 감소

익산시가 폭염기 악취로 인한 시민 불편 최소화를 위해 적극 나선 결과 악취 민원이 지난해 대비 대폭 저감되는 효과를 거뒀다.

이는 체계적인 악취민원 대응 시스템을 성공적으로 운영한 결과로 익산시가 '살기 좋은 도시'로 거듭나고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시는 익산악취액 어플, 악취상황실 유선 등을 통해 접수된 을해 상반기

의 악취 포집을 통한 실시간 데이터 분석으로 악취 빌원자를 추적하는 비대면 사업장 지도·점검을 대대적으로 실시했다.

또한 축산악취 관리 대책으로 하절기 합동점검을 실시해 축산폐수 무단 방류·집중점검과 악취배출원에 대한 특별 관리를 시행하고 있다.

이는 5~10월 악취민원 집중 발생 기간에 24시간 악취상황실을 운영하여 야간 단속과 민원 발생 시 신속한 현장 대응의 결과로 풀이된다.

/익산=이재춘기자

하는 전략 아래 대대적인 편의시설 확충에 나선 것 또한 '대한민국 안심 관광지'로 선정된 된 이유다.

한다는 전략 아래 대대적인 편의시설 확충에 나선 것 또한 '대한민국 안심 관광지'로 선정된 된 이유다.

/익산=이재춘기자



익산시의회 기획행정위원회(위원장 정경호)가 제9대 상임위원회 구성 후 첫 현장 방문으로 왕궁 보석박물관 현장을 찾아 리모델링 및 체험시설 조성사업을 점검했다.

리모델링·체험시설 점검

익산시의회 기획행정위원회, 왕궁 보석박물관 현장 방문

익산시의회 기획행정위원회(위원장 정경호)가 제9대 상임위원회 구성 후 첫 현장 방문으로 왕궁 보석박물관 현장을 찾아 리모델링 및 체험시설 조성사업을 점검했다.

기획행정위 소속 의원들은 21일 왕궁 보석박물관 현장을 찾아 리뉴얼사업 노후시설 점검과 기획전시 미디어 아트 플랫폼 체험존 조성사업, 디아노 키즈월드 실내·외 놀이체험시설 등에 대해 추진사항을 보고받고 현장을 둘러봤다.

이날 현장을 방문한 의원들은 먼저 보석박물관 리뉴얼사업 노후시설 개선공사에 대해 사업내용과 그간 추진사항을 점검했다.

보석박물관 리뉴얼사업은 지난 2021년 1월부터 올해 12월까지 진행되며 사업비 34억 원을 투입, 옥상방수와 창호 단열필름 시공, 승강기 교체, 화장실 리모델링, 냉난방기 교체 등 내

부시설과 아의회장실 등 부대시설 개선공사를 실시하고 있다.

이와 함께 기획행정위원회는 기획전시 미디어 아트 플랫폼 체험존 조성사업과 디아노 키즈월드 실내·외 놀이체험시설을 둘러보고 보다 많은 시민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개선방안과 인전 점검을 강조하며, 일괄히 추진될 수 있도록 시의회 차원에서 힘을 쏟겠다고 약속했다.

정경호 위원장은 "익산의 대표 관광지인 보석박물관은 백제문화유적과 보석 생산으로 유명한 관광자원인 만큼 이번 개선공사가 더 나은 관람 여건을 제공하기 위한 기회가 됐으면 한다"며 "우리 위원회에서도 보석박물관 및 미디어아트 체험존 디아노 키즈월드 놀이체험시설 등이 익산의 상징적 랜드마크로 거듭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꾀력했다.

/익산=이재춘기자

군산시, 해조류 양식분야 계절근로자 도입

군산시는 지역 김양식 어가의 인정적인 인력수급을 위해 외국인 계절근로자 도입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코로나19 장기화와 어촌의 인구감소로 인력난을 겪고 있는 지역 김양식 어가를 위해 총 22개소 고용 희망 어가를 대상으로 군산시 거주 결혼이민자와 본국 가족 또는 그 배우자(4촌 이내)로 한정해 모집한 외국인 계절근로자 22명을 투입할 계획이다.

외국인 계절근로자 제도는 파종이나 수확기 등 단기간 집중적으로 일손이 필요한 농·어업 분야에 계절근로(E·B) 체류 자격으로 최대 5개월까지 외국인을 고용할 수 있는 제도다.

외국인 계절근로자 프로그램은 지난 2021년부터 외국인 계절근로자 도입 대상 분야 확대 건의에 따라 법무부가 기준 수신률 기준을 가공업분야에서 해조류 양식분야를 추가 비영하여 국내 최초로 군산시, 완도군, 진도군이 해면양식 시범지역으로 선정되어 추진 중이다.

이에 따라 시는 올해 6월 법무부에 김양식업 계절근로자를 배정 신청해 7월 신청 인원과 동일하게 배정 확정받았으며, 균로계약 및 비자발급 등 사전절차를 이행하여 오는 9월 중 입국 계획으로 이후 고용주와 함께 사전교유를 실시하고 근무자에 투입할 예정이다.

/군산=김판곤기자

지역 소식통

군산시, 청년근로자 자기개발비 지원

군산시와 전북산학융합원(원장 나석훈)이 '지역주도형 청년 일자리사업' 참여 청년근로자의 역량강화를 위해 자기개발비 지원에 나선다.

청년근로자 자기개발비 지원은 군산시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사업에 참여 중인 청년을 대상으로 직무능력과 취업역량 강화를 돋기 위한 것으로 총 240여 명에게 지원되며, 국가자격증 취득을 위한 시험 응시료, 자격증 취득 수당, 자격증 및 취업관련 도서 구매 등이 내용으로 1인당 연간 최대 50만원까지 지원될 수 있다.

나석훈 전북산학융합원장은 "청년들이 입사 후 스스로 자기개발을 해나갈 수 있도록 앞으로도 청년들에게 배움과 성장의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군산=김판곤기자

군산시, 민선 8기 공약사업 실천계획 보고회 개최

군산시는 21일 공약사업 추진을 위한 민선 8기 공약사업 실천계획 보고회를 개최했다.

이날 보고회는 분야별 실천방안과 문제점을 국별로 보고한 후 국소장 토론을 거쳐 조정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민선 8기 시는 △교육자치, △행정혁신, △산업경제, △글로벌 상권, △농수산업, △문화관광, △환경인전, △보건복지의 8대 분야 28개 부서, 60여개의 공약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이어 △공공학습앱 공부의 명수 개발, △4차 산업 지식산업센터 건립, △중·고등학생 시내버스 무상요금 도입 등 주요 공약에 대한 보고가 이뤄졌다.

이 밖에도 교육하기 좋은 도시, 청년 창업 수도 군산 건립을 위해 다양한 공약사업의 실천방안이 논의됐으며 공약이행 평가단 회의를 거쳐 오는 9월 중 최종 확정될 예정이다.

김임준 군산시장은 "공약은 민선 8기 시정 운영의 방향을 안내하는 나침반으로 민선 7기에 다져진 경제회복의 기틀을 대도약의 시대로 확장해 나가는데 열쇠다"고 말했다.

/군산=김판곤기자

착한신고



"신고하는 당신이 영웅입니다"

아동학대 범죄를 알거나 의심만 되어도 신고하여야 하며 신고하지 않은 경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아동학대란 보호자를 포함한 성인이 아동의 건강 또는 복지를 해치거나 정상적 발달을 저해할 수 있는 신체적·정신적·성적 폭력이나 가혹행위를 하는 것과 아동의 보호자가 아동을 유기하거나 방임하는 것을 말한다.

아동이나 학대행위자의 정보를 파악하지 못해도 신고는 가능하며, 가능한 많은 정보를 제공하도록 한다.

전화: 국번없이 112
방문: 관할 지역아동보호 전문기관

아동학대 행동적 징후

- 어른과의 접촉회피
- 다른 아동이 울 때 공포를 나타냄
- 공격적이거나 위축된 극단적 행동
- 부모에 대한 두려움
- 집에 가는 것을 두려워함
- 위험에 대한 지속적 경계